

호남火電 주변 유소년 호흡기질환 심각

〈화력발전소〉

유병률 15.9% 전국 평균 3배

여수발전소도 천식 위험 높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급

여수시에 위치한 호남화력발전소, 여수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15세 미만 유소년의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최대 3.1배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1

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가운데 8곳에서 주민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 유병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연구한 ‘발전소 영향권 범위’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2005~2015년)’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운데 15세 미만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15세 미만의 경우 전국 평균 호흡기계 유병률은 10만 명당 5195(5.2%)명인데 ▲호남화력발전소 5km 이내에서는 15세 미만 유병률이 평균 1만5859명(15.9%)으로

조사됐다. 대기모델링을 통한 영향권 범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15세 미만 호흡기계 유병률은 1만4029명(14.0%)로 나타났다. 어떤 기법을 적용하든(거리·대기모델링) 15세 미만의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2.6~3.1배 높은 것이다.

인근 여수화력발전소 주변도 마찬가지다. 여수화력발전소 5km 이내에서 15세 미만의 호흡기계 유병률은 1만3945명(13.9%), 대기모델링 영향권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노후화력발전소가 아닌 여수화력발전소 주변지역 15세 미만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2.7배(천식은 4.5배)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따라 노후 발전소로 분류된 호남화력발전소 1, 2호기는 2021년 조기 폐쇄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발전소는 계속 가동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을 향해 시민사회,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요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정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물론 노후화되지 않은 발전소 역시 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별개로 발전사들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증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국 조윤제·중국 노영민

일본 이수훈·러시아 우윤근

文, 4강 대사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노영민 주중대사, 이수훈 주일본대사,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등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외교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한중관계 발전에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일 양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 김대중-오부지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대사는 “한러 관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 ‘한러 센터’를 건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배려의 길 걸어요 지방이를 손에 든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25일 금남로 인도에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 기념식에 앞서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적 수준 한전공대 만들기…전문가 포럼

11월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계 관련 대학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전공대의 지향점 등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전은 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과 입지시서를 작성 중이며, 내년 지방선거에 이전에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전은 25일 “2017 국제 전력기술 엑스

포’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11월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유일무이, 한전 공대 Big Picture를 쏜다’를 주제로 한전공대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 광주시, 전남도, 지역대학,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한전 내에 꾸려진 한전 공대 설립 태스크포스(TF) 관계자가 한전공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지향점 등을 사전발표한다.

이후 볼프강 레너 독일 드레스덴 공대 교수가 ‘글로벌 지향의 대학설립 차별화 방안’에 대해 발표, ‘에너지 중심의 미래 공대 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비롯해 한전공대 설립방향에 대한 포럼 참석 청중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충청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 등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을 만든다는 게 기본 복안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9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외부 컨설팅 용

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용역 지침서 작성에 나선 상태다. 용역 발주 전까지 한전공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대학 입지와 규모까지 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밖에 지자체와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 비용으로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약 150만㎡(45만 3750평) 규모로 2020년까지 설립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올해 여름 MIT 등 세계 수준 공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추후 인허가 등 설립 절차와 건설 등 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文대통령, 어제는 광주·오늘은 여수

정부 출범 첫 ‘제2국무회의’ 개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단체장들의 정책 간담회인 ‘제2국무회의’가 26일 여수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자치분권 간담회’로, 정례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자치분권 간담회가 26일 여수세 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한다.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확산한 주요 정책과 우수 사례 등이 전시된다.

첫날인 26일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

자 9명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지방4대협 의회장들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27일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17개 시·도 대표 외국인 주민 공연 등 연계 행사가 열린다.

박람회 기간에는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 로드맵’이 발표된다.

박람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비전, 각 시·도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홍보관을 비롯해 6개 기초 시·군·구가 처음으로 홍보 부스를 열어 행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해외 자매도시와 지방자치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해 최근 활동 사례를 알린다.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 먹거리 등을 홍보하는 이벤트관도 운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전 폐기비용 최소 64조원인데

돈 쓸 한수원 주머니엔 4조원뿐

원자력발전소(원전)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폐연료봉) 처리비용이 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처리비용 부담자가 현재 확보한 기금은 5조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데 2035년까지 26조35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53년 영구처분장이 들어서고 여기에 처분하는데 드는 비용 37조 7736억원을 합치면 최소 64조1301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신규 건설 원전을 포함 전국의 36기 원전(영광 한빛원전에는 6기의 원전이 있음)이 설계수명 만료까지 가동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처리할 경우를 가정해서 산정한 비용이다.

그러나 정작 비용부담 주체인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리)를 위한 기금을 현재 4조7384억원 밖에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5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고 모든 비용은 원

전 운영사인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그 비용을 전기요금을 인상해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떠넘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의락 의원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확보와 별개로, 한수원이 관리(처리)비용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Ⅰ.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6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상환 등 고려
 - ◆선발 인원 : 00명
- Ⅱ.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 Ⅲ.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21일(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7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7. 12.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 (12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 010-8667-6143
- Ⅳ.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